

2001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빈의 경제관에 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역사신학전공

이준규

칼빈의 경제관에 대한 연구

지도이은선교수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년 2월 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역사신학전공

이준규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해주신 이은선 교수님과 심사를 맡아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격려해주신 원효식 교수님과 원용국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학의 배움의 길로 인도하시고 겸허하신 자세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언제나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기도하시며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의 형제들, 그리고 그 외에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논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구로문교회 교역자와 집사님들, 교정을 도와준 안광성 친구와 자료수집과 원고를 정리해준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도 나를 아끼시며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12월

이 준 규

차 례

논문요약	1
I. 서론	2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B.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II. 칼빈의 경제관의 배경	5
A. 유럽 경제의 배경	5
B. 제네바의 사회 경제의 배경	7
III. 칼빈의 사회관	10
A. 칼빈과 휴우머니즘	10
1. 칼빈의 인간상과 소명	11
2. 칼빈의 경건	12
B. 프로테스탄트 윤리 및 청교도 정신	13
1. 소도읍 생활과 청교도 정신	13
2. 대중향락주의와 새로운 자본주의	14
IV. 칼빈의 경제관	17
A. 칼빈이 주장한 부와 빈곤	17
B. 교회안에서의 돈의 기능	22
C. 상업과 고리대금업	24
D. 임금과 노동	25
V. 칼빈의 사회복지 정책	30
A. 구빈원을 통한 구제활동	30
B. 집사제도를 통한 빈민구제	31
VI. 칼빈의 경제관이 현대사회에 끼친 영향	33
A. 칼빈과 현대사회	33
B. 칼빈과 21세기를 위한 한국의 경제관	35
VII. 결론	37
A. 청지기 직분	37
B. 우리의 할 일	38
참고문헌	41

논문 요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제생활과 신학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소홀히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바람직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교리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오늘날 서구 시민사회 형성과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았던 존 칼빈의 경제관을 연구해봄으로서 오늘날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과 바람직한 경제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성경주석, 그의 신학사상을 분석하면서 서구 학계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칼빈의 경제관을 검토하였다. 먼저 칼빈의 경제관의 배경이 된 16세기 유럽의 경제사적 배경과 제네바의 경제상황을 살핌으로서 칼빈의 경제사상의 기초가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칼빈의 경제관에 대한 구체적인 그의 견해를 살폈다. 부와 빈곤에 대한 그의 견해 그리고 상업과 노동에 대한 그의 견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그의 견해, 마지막으로 그의 경제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물론 칼빈은 경제학자가 아닌 신학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제학자 못지 않게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경제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기본 전제는 성경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어진 재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존재이다. 그는 부와 노동관에 있어서 중세의 사상을 극복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였으며, 동시에 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동에 있어서 루터의 견해와는 달리 노동을 성화에 관련시켜 적극적인 직업 활동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노동은 공익에 봉사하는 공공선을 증진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외에도 임금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정당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고리대금업에서는 이중적인 견해로 가난한자의 구제와 산업대부로 구분하였다.

이 논문에서 칼빈의 모든 경제사상을 다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21세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아울러 칼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다.

I. 서론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독교 신학은 이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 특히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정신적이고 저 세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결코 이 세상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인간의 삶과 독립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학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 모든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은 사실이다. 곧 기독교는 그것의 첫 역사 이래로 다양한 경제적 상황과 구조 속에서 갈등과 통합을 경험하면서 발전되고 전개되어 왔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속에서 저항하고 적용하면서 기독교 경제 윤리를 형성하고 기독교 신앙의 경제적 함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한국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서도 사회와 경제질서에 기독교 신학과 신앙이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찍이 종교개혁가들은 기독교 신앙과 경제활동에 깊은 관계를 이해하였고 그 사회와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해서 막스 웨버(Max Webber)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막스 웨버는 여기서 개혁파들의 신앙이 서구 자본주의와 근대적 경제성장에 끼친 영향을 규명한 것이다. 물론 막스 웨버의 논제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찬반 양론의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¹⁾ 그러나 기독교 신앙과 서구 자본주의와의 깊은 연관성을 처음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처럼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 생활이 신학과 오늘을 사는 교인들에게 너무 소홀히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바람직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교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성을 지니는 이유는

1) 마리안네 베버, 막스베버의 생애(서울:일신서적, 1995), p. 92.

우리는 경제생활과 밀착되어 살고 있으며 아울러 조금만 눈을 돌려 우리 주위를 보면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이념과 국경을 초월하여 경제 전쟁을 불사하여 세계 경제 구조는 갈수록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도 역시 이 상황에서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나 개인이나 소득의 분배와 산업간의 불균형으로 노동자들과 일반서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분출되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람직한 경제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특히 오늘날 서구 국가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칼빈의 경제사상을 연구해 봄으로서 오늘날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얻고자 한다.

B.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지금까지 칼빈의 사회 경제 사상이 연구되어온 연구사를 살펴보면 칼빈의 사회 경제 사상이 서구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도록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앞에서 언급한 1904 - 5년에 걸쳐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부터이다.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가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그 중에서 칼빈주의가 있다고 논증하였다.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택받은 기독 신자가 그 존재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 유일한 목적인데 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직업에 충실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금욕적인 생활양식을 갖게되고 이는 또 소비의 억제에 작용한다. 이로 말미암아 부는 축적되고 이 부가 자본의 조직적인 축적으로 산업 자본이 형성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³⁾

이러한 베버의 가설을 둘러싸고 학자들간에 많은 논쟁이 벌어짐으로서 학문의 발전이 계속되었다. 먼저 베버의 이 논제인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입장은 Troeltsch, Tawney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학자는 라크폴, 슴바트, 로버튼, 헨리, 씨 등이 있다. 베버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칼빈주의가 자본주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입장이나 반면에 베버의 주장을

2) 이호열, 세계교회사(서울:기독교지혜사, 1988), p. 273.

3) 마리안네 베버, op. cit., p. 95.

반대하는 학자들은 자본주의는 이미 14-15세기경에 발전하여 칼빈주의보다 먼저 발생하였으므로 이 둘 사이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 몇 명의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트릴취(Ernst Troeltsch)는 『기독교회의의 사회적 가르침』에서 베버의 주장을 받아들여 칼빈주의 직업관과 예정의 확증을 위한 금욕적 노동 그리고 이와 결부되어 나태를 금기시하고 소득 획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가르침이 자본주의 발전에 공헌했다고 주장하였다.⁴⁾

그러나 비엘러(Bieler)⁵⁾의 주장은 베버가 분석한 칼빈주의는 칼빈 자신의 사상이 아니라 후기 칼빈주의의 사상이며 본래 칼빈의 사상은 후기 칼빈주의의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엘러는 칼빈의 주석과 설교를 자료로 하여 칼빈의 사회 경제사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나름대로 새로운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이 분야에 큰 공헌을 이룩해 놓았다.⁶⁾

그 후에 비엘러의 뒤를 이어 프레드 그레함(fred Greham) 『건설적인 혁명가 존 칼빈』에서 역시 베버의 논제를 비판하면서 베버가 칼빈주의자로 언급한 사람중에 리차드 백스터만이 진정한 칼빈주의자였다고 주장하고 리차드 백스터의 사상에 대한 막스 웨버의 설명도 리차드 백스터의 원래 정신과는 다른 것이라 주장했다. 백스터는 직업이 얼마의 부를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공의를 위한 봉사인지, 그 직업이 영혼과 육체에 유익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⁷⁾

그레함 이후 리이드와 부스마가 칼빈의 사상을 계속해서 연구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 나갔다.

본고에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성경주석, 그의 신학사상을 분석하면서 서구 학계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칼빈의 경제관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칼빈 자신이 경제 사상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적은 없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와 성경주석에서 산발적으로 자신의 경제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당시 제네바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의 주 저서인 기독교 강요와 성경주석에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바른 경제 생활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4) J.K. Gelbraith, The Nature of Mass Poverty, 민병일 역(서울:태평출판사, 1979), p. 28.

5) Andre Bieler; 제네바의 현 목사이면서 제네바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다.

6) Andre Bieler, 칼빈의 경제 윤리, 홍치모 역(서울:성광문화사, 1992), p. 54.

7) 맹용길, 기독교와 사회(서울:기독교문사, 1986), p. 65.

물론 그의 경제 사상은 근본적으로 그 신학사상에 뿌리박고 있으며 성경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칼빈의 경제관의 배경을 살피고 나아가 그의 경제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핀 후 그의 경제관이 서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마지막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런 분석과정을 통해서 칼빈 자신의 경제관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서 칼빈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의 경제 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II. 칼빈의 경제관의 배경

우리가 먼저 칼빈의 경제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세기 전후의 제네바의 경제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칼빈 당시의 유럽의 경제상황을 아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 여기서는 칼빈의 경제관을 알기 이전에 이 칼빈이 종교개혁의 운동을 하던 그 당시를 전후한 유럽의 사회적 배경과 또한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경제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그래서 계속되는 칼빈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

A. 유럽 경제의 배경

종교개혁기의 유럽은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농업중심의 장원제 사회에서 상공업 중심의 도시사회로 변화하는 과도기였다. 이런 변화의 와중에서 가장 불만을 많이 느낀 계층이 농민 계층이었으며 그래서 다수의 도시 상공인들을 포함한 농민들의 운동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들의 불만의 요인은 도시화와 인구의 도시화와 인구 변동에서 온 경제사회적인 변화이었다. 상공업 중심의 도시가 형성되자 농민들은 도시인들의 부에 대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농업 중심의 장원제 사회에서는 영주 등 극소수의 특권 계층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생활을 영위했으나 도시가 발흥하고 농

민들이 도시에 왕래하게 되자 도시의 상공인들에 비해 자신들의 빈곤한 생활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 한편 상공업의 발전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상인들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기아를 조성하고 가난한 민중을 살해한다”라는 말이 속담처럼 쓰일 정도로 상인 계층에 대한 반감이 만연했다. 물가의 상승은 일정한 토지 수입에 의존하던 봉건 영주들의 수입을 상대적으로 하락시켰으며, 봉건 영주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에 공유지로 사용하던 지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농민들에게 강제 부역을 시키거나 해서 수입을 높이려고 했으며, 이러한 일은 농민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켰다.⁸⁾

이 뿐만 아니라 중세 말의 인구 변동이 농민들의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유럽의 인구는 1200년경에는 6천만명이었는데 1300년경에는 7천여만명으로 증가했다. 한정된 토지에 인구가 증가하자 새 토지를 개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개간 산업은 베네틱트 수도원이나 시토회 수도원 등 주로 수도원에서 했으나 제후들도 개간사업에 참여했다. 그들은 농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신분상의 자유, 임의 계약에 의한 토지 임대, 생산물이나 화폐에 의한 지대 납부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렇게 신개간지의 농민들이 우대를 받는 것을 보자 신분상의 부자유 아래서 지나친 공납과 노동 상태에 있던 장원의 농민들은 도시나 새 개간지로 가기 위해 장원을 이탈하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영주들은 이들을 묶어 두기 위해 농지를 대여하고 지대를 받거나 아니면 노임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경작하기도 했다. 이제는 농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영주들은 농노들을 신분상으로 해방시켜 주기도 했다. 생산물이나 화폐로 지대를 납부하게 된 농민들은 경작에 전력하여 생산물을 증산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⁹⁾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후 유럽 사회는 급격하게 개편되기 시작했다. 구교를 지지하는 세력과 신교를 지지하는 세력간의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마침내 하나의 기독교 세계였던 유럽 사회를 양분시키는 것이 외에도 사회적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루터의 만인 사제설, 그리스도인의 자유성 등과 같은 교리는 폭넓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농민운동의 실패로 좌절 속에 빠져있던 다수의 도시민들을 포함한 농민들

8) 이호열, *op. cit.*, p. 274.

9) 이태언, 칸빈의 개혁 사상 연구(서울:성광문화사, 1992), p. 142.

은 루터의 이런 교리에 깊이 공감하고 루터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들은 1524-25년 토마스 뮌처(Tomas Munzer)의 지도를 받으면서 대규모적인 농민운동을 일으켰다.

처음에 루터는 중재자의 입장에 섰다. 하지만 루터는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농민 무리들에 반대하여”라는 책자를 썼고, 이때부터 이들 농민들 중 다수의 사람들이 루터의 개혁운동에 등을 돌리고 재세례파 운동으로 향하게 되었다.¹⁰⁾

이처럼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대단히 소란한 사회요 시기였다. 이러한 유럽의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칼빈이 이러한 상황에서 곧 유럽의 사회가 중세 장원제 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변화하던 시기에 활동하였으므로 그는 이 재세례파들과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루터의 이론과 사상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도래해 오는 산업사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산업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B. 제네바의 사회 경제의 배경

이제 칼빈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제네바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알아보아야 한다. 제네바의 지리적 위치를 먼저 살펴보면 르만호수(Lake Lemann) 또는 제네바 호수(Lake Geneva) 남서쪽 최극단 해협에서 론느강은 남쪽으로 돌아 지중해로 흘러가기 전에 프랑스로 들어가는 서쪽 흐름이 시작된다. 바로 이 론느강이 두 줄기로 갈라지는 호수의 기슭에 바로 제네바가 자리잡고 있다. 비록 이 도시가 바젤이나 쥐리히 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제네바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훗날 종교개혁의 중심지로서 유럽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 사회적 영향을 끼치기 이전에도 이곳은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도시를 연결해 주는 교통의 중심지요 또 무역의 거점이며 천연의 요새이기도 했다.

이 제네바는 중세기 동안에 표면적으로는 그 도시의 감독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사보이(Savoie)의 대공에 의한 통치를 받는 감독 도시였다. 대공 샤를 3세(Duke Charles 3.)는 1504년에 통치를 시작했으며 처음부터 제네바에 대

10) 이호열, op. cit., p. 275.

한 그의 요구들은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과중한 세를 부담시켰다. 그러므로 시당국과 주교 양자 사이에는 지배력의 우월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과 팽팽한 긴장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시민들은 이러한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시민으로 특권과 자치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주위의 여러 국가들의 대립으로 독립을 얻기에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였다. 이 제네바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성취한 것은 1536년 8월 7일이었다. 제네바 시민들의 민주주의는 주교의 영주적 권리와 사보이의 공작이 도시와 영토에 대해서 누렸던 주권적인 권리를 계승하였다.¹¹⁾

이 뿐만 아니라 제네바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식량문제였다. 빈약한 농업지역이요 여기서 주산물은 삼, 곡물이었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제네바 주변들이 충분한 공산품이나 농산물을 공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외부에 의해서 조달되어야 했다. 비록 유럽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상에 위치해 있다는 이점 때문에 15세기에 제네바에서는 국제적인 무역시장이 열렸다. 이 무역시장을 통해서 큰 수입을 올렸고 유럽의 은행가들은 이곳에 지점을 설치할 정도였다.¹²⁾ 그러나 이러한 번영도 오래가지 못했다. 프랑스 왕들이 프랑스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였고 그러한 조치로 리용에 특별무역 특구를 설치하였다. 이후 제네바는 경제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쇠퇴하였다.

이후 유럽의 상황 역시 제네바의 경제상황에 더욱 악화시킨 요인들이 발생했다. 1470년 브르군디가 스위스 연합을 공격했고 이일로 제네바는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물어주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 이후 제네바는 인구가 감소하고 돈 많은 은행가와 상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신흥 상인들이 성장하여 브르쥬아 계층을 형성하였고 이들이 훗날 제네바의 독립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했다. 1526년에는 프리부르크와 베른과의 협약 후에 52명의 부유한 구 귀족들이 제네바를 떠났다. 이처럼 1470년부터 1520년까지 산업은 거의 50%가 감소했지만 다행히 소상인들이 이전의 상인들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 소상인들이 가계를 차리게 되었고 이들이 브르쥬아의 자격을 갖추며 가난한 도시 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들이 시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들의 진취적인 정신은 훗날 종교개혁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¹³⁾

11) 이양호, 「칼빈의 종교 개혁의 사회사적 배경」, (기독교사상, 1986.10), p. 36.

12) 이태언, *op. cit.*, p. 142.

13) 이태언, *Ibid.*, p. 144.

다음은 제네바에서 길드와 산업의 성장이 길드와 산업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네바의 길드와 산업의 성장에는 외국인들이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들은 교육뿐 아니라 인쇄, 직물, 금속공예, 보석가공, 시계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 외국인들은 대부분 피난 온 사람들로서 이 제네바에 정착하였고 그들은 그들이 이전에 가진 재능과 기술을 이 제네바에서 사용한 것이다. 1550년 인쇄업이 성장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었으며 제네바의 경제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이들은 도시 위원회로부터 길드 조직의 특허를 가장 먼저 받게 되었다.

제네바의 인쇄업자들은 성경, 시편찬송, 논쟁서와 다른 많은 작품들을 출판하였는데 프랑스로 수출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책의 양은 엄청난 것으로 1561년 말부터 1562년 초까지 베자 시편은 27,400권이 출판되었고 1560-62년 사이에 출판된 책의 20% 이상이 성격이었다. 이외에도 기도서, 문법서, 교리개요서, 그리이스, 라틴 고전의 출판이 상당량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인쇄업자간의 상대방에 대한 음모나 비난이 있었고 또한 출판의 내용이 부실, 잘못된 오류는 위원회에서 인쇄업자를 감독 검열함으로써 올바르게 해결하였다.

직물업은 1540년에 구빈원을 통해서 도입 장려되었다. 주로 실업을 줄이려는 칼빈의 노력에 의해서 구빈원에서 옷감을 짜기 시작했다. 그 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피난민들이 기술을 가져옴으로서 발전하고 번성하였다. 칼빈은 구빈원에서 단순한 의복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얼마 안되어 제네바의 직물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실크 만드는 것은 1543년에 시작되었는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1560년 리용, 파리 북 이탈리아 등과 경쟁하기 시작했다.

제네바에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길드가 조직되었고 이제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런 갈등에 대해 시 목사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시도했다. 1557년 제네바의 시위원회는 칼빈의 지도에 따라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지 않게 단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칼빈은 "어떤 사람이 주인신분으로 올라섰을 때 상업의 미신적인 행위와 방종한 행위들이 발생한다"라고 비난했다. 이때 공포된 포고령은 방종한 목적들을 위한 어떤 집회도 금지시켰다.¹⁴⁾

14) 이양호. op. cit., p. 38.

이러한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갈등과 분재의 문제에 대해서 시위원회가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중재를 하게 된 것도 노동자들의 불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경영자들 때문이었고 시위원회가 인쇄업의 전면적인 법규를 세웠는데 이 조치를 취한 것은 갈라르와 베자의 건의 때문이었다. 이처럼 제네바시의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명령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중재를 위해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양측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지식을 토대로 어려움을 해결할 법규를 작성했다. 그러므로 가장 공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바로 이 시위원회의 중재 하에 상호 이익을 보장받으며 서로의 공존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Ⅲ. 칼빈의 사회관

A. 칼빈의 휴우머니즘

칼빈의 신학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에 미친 영향은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 까닭은 그가 정치, 경제, 사회 일반에 조예가 깊고 넓다기보다도 그의 신학이 지닌바 “윤리적 거대성”에 있는 성싶다. 칼빈주의 자들에 의하면 칼빈은 “신의 영광” 일변도라 할 정도로 신 중심주의자였기 때문에 인간이나 사회윤리 문제를 둘러싼 휴우머니즘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신에 칼빈 연구가 비엘러나 W.C.C의 비서트 후프트에 의하면, 칼빈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사회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빛깔의 혁명적 휴머니스트라고 단정을 내리고 있다.

신의 영광만을 위한 신중심주의자 칼빈이 어떻게 인간의 불평등과 인간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 휴머니스트가 될 수 있겠는지, 또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를 자본주의적 자유방임 주의의 아버지라 일컬어 왔는데 이를 반증할 만한 논거는 무엇이겠는지, 이런 논쟁적인 과제를 이 짧은 지면에서 명철하게 상론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먼저 칼빈의 인간상의 문제를 다루고, 다음으로 인간 소외와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칼빈이 자본주의의 시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소외를 극복한 혁명가적 면모와 아울러 그의 신학의 “윤리적 거대성”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혁 교회의 횃불이 되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1. 칼빈의 인간상과 소명

지난 수 세기 동안 근대 과학의 진전에 따라 인간은 사슬 풀린 프로메테우스처럼 신에게서 해방되어 이성의 무한한 힘을 디는 낙관주의의 미망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자 양차 대전을 격음과 동시에 원자 무기의 위협을 받으면서부터 인간은 다시 자기 자신의 이성애의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회의에 부딪혔다.

까뮈는 그의 ‘반항적 인간’의 결장 “허무주의를 넘어서”에서 20세기 인간이 지닌 운명적인 허무와 심연을 극복하려고 새로운 휴머니즘을 전개하였다. 또 사르트르 역시 ‘스탈린의 유령’이나 ‘변증법적 이성비판’에서 “인간의 자기 소외”를 없애려고 노력하였다.¹⁵⁾

이러한 인간상의 문제는 칼빈의 신학에서 훨씬 명답을 얻을 수 있기에 우선 종교 개혁 당시로 돌아가서 칼빈의 인간상을 일별해 봄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칼빈 시대의 인간들은 현대 실존주의 작가들이 폭로한 허무와 죄책에 가득 찬 실존마냥 자기 무력과 죄의식에 깊이 빠져있었다. 그때의 상황을 털리히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무의미와 내적 죄책의 콤플렉스에 잡힌 시대였다고 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정치제도나, 예술, 문화 일반 또는 이성의 계발에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참 인간의 모습을 재발견하려 했고 거기로 복귀함으로써 인간의 깊은 불안의 안개가 개이리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유대 기독교 문화의 원천에로의 복귀만을 제창하고 회랍 고전에의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요컨대 칼빈은 자기 소외에 흐느끼는 인간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인간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15) Albert Camus, L'Homme Revote(Librairie Gallimard, 1951)

2. 칼빈의 경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화(義化)를 강조하였으나 신생(新生)의 생활에는 그렇게 역점을 둔 것 같지는 않다.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칼빈은 법의 제3용법을 제기하면서 의화 후의 생활에 더 큰 관심을 두었던 것 같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은 의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착한 윤리적인 생활에서 광채를 발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인간 형성 과정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생의 3대 덕을 제시했다. 그것들은 근신, 공정, 경건이다.¹⁶⁾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첫째는 근신이다. 근신이란 어떠한 역경이나 가난 속에서도 참고 이기며, 항상 정결하고 절제함으로써 모든 것을 근엄하게 사용하는 강인한 생활을 말한다. 두 번째는 공정을 말한다. 공정이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공평무사함 의무감과 아울러 사랑과 평등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을 말하는데 경건이란 신 앞에 겸허하며 성령으로 더러워지고 죄 된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순화시키려는 태도라고 말했다.¹⁷⁾ 다시 말하면 칼빈의 인간형성은 모든 것에 근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스스로 무사공평(無私公平)하게 봉사하며 신 앞에 성결함으로써 겸손한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룩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세계에 봉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이룩된다.

자기 부정은 곧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며 타인을 위한 사랑이 인간성의 실현인 것이다.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룩하려면 단순히 내적 경건이나 근신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전부를 바치는 데 있다.¹⁸⁾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다. 주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집사직(Stewardship)을 맡기셨다. 이런 집사직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야심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자기의 것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고 희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¹⁹⁾ 이 집사직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우

16) Fred. G, 건설적인 혁명이 칼빈, 김영배 역(서울:생명의 말씀사, 1986), p. 112.

17) Fred. G, Ibid., p. 114

18) Fred. G, Ibid., p. 115

19) 이호열, op. cit., p. 272

리에게 위탁한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요 법의 제3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 겸손과 절제로 또 교만, 사치, 허영을 버리고 사랑으로 남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을 하게 된다. 이것이 주의 소명이요, 명령이다. 이런 일을 더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일정한 의무를 부과시켜 놓은 것이다. 그것이 소명(Vocation)이다.²⁰⁾

어쨌든 칼빈의 소명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하여만 하고 타자를 위한 사랑에서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B. 프로테스탄트 윤리 및 청교도 정신

문화적 실재와 생활양식의 변화는 반드시 사회구조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장식품, 기록물, 촬영물, 오락물과 같은 예술작품이 시장에서 매매되기 때문이다. 시장은 사회구조와 문화가 만나는 곳이다, 대체로 문화의 변화, 특히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현은 감각의 변화 뿐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미국 사회에 있어서 고도 소비경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구매습관의 발달과 미국 부르조아 사회의 전통적 가치체계를 지속시켜 온 두 가지 관계 즉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청교도 정신의 붕괴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소도읍 생활과 청교도 정신

앞에서 언급한바 있지만 칼빈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청교도적 정신은 노동, 절제, 검소 등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관례였다. 196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스트 문화는, 그 자체를 “반문화(Counter-Culture)라고 부르듯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거부하고, 청교도 정신의 종말을 가한 것으로 해석해 왔는데,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상, 사회적 사실로서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청교도적 정신은 이미 오래전에

20) 이종성, 칼빈의 생애와 사상(서울:CLS, 1990.), p. 85.

사라졌고, 행동주의적 현실로서보다는 퇴색되어 버린 이데올로기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여, 혼계를 일삼는 도덕 주의자에 의해 사용될 뿐이다. 사실, 전통적 부르조아 가치 체계의 붕괴는 부르조아 경제 체계 -구체적으로 말해 자유시장- 에 의해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수의 요인이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청교도 정신이란 농촌적, 소도읍적, 사인적, 그리고 장인적인 생활방식에서 나온 세계관이다. 페이지 스미드가 말했듯이 “가족과 교회를 제외한다면 20세기 초반까지의 사회구조의 기본형태는 소도읍이었다. 미국 사회의 생활과 성격은 소도읍, 그리고 그것의 종교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것들은 절대적인 환경에 있어서 공동체 범규의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필요하였다. 즉 노동과 검약한 생활 경제에 대한 의미와 정당성을 부여하였던 것이다.”²¹⁾

하나의 가치체계란 종종 불분명하고 불완전하다. 가치체계가 하나의 구체적인 규례로 조직화되고 일종의 종교적 교리(Dogma)라든지 명백한 계약, 혹은 이데올로기로서 형성될 때, 그것은 한 공동체를 이동시키고 규율이나 사회 통제 기구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Van Wyck Brooks는 매우 신랄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청교도라는 술이 었질러졌을 때 그 향기는 초월주의가 되었고 술 그 자체는 상업주의가 되었다.”

이념 체계로서의 청교도주의는 200년 동안 변모를 일으켜 엄격한 칼빈주의자의 예정론으로부터 에드워즈의 미학적 계몽을 거치고 에머슨의 초월주의를 지났으며, 마침내 남북전쟁 후 “점잖은 전통” 속으로 용해되었다. 일종의 사회관습으로서 그것은 자유분방한 개인주의와 돈벌이, 그리고 소도읍 생활이라는 제한적인 규례에 대한 사회진화론적 정당화로 변형되었다.

2. 대중향락주의와 새로운 자본주의

저축(절제)은 프로테스탄트윤리의 핵심이다. 아담스미스의 절약과 근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낫소 시너의 절제에 대한 사상과 저축은 미래의 생산을 늘리고 이자로 인한 소득을 가져온다는 생각이 확고히 형성되었다. 은행 습관의 변화로 대단원의 막이

21) Page Smith, As a City upon a Hill(New York : Alfred A. Knopf, 1960), p. 7.

내린 것이다. 수년간 사람들은 부도수표 때문에 은행에서 많은 돈을 찾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것이 바로 중류층 도덕의 어두운 망상이었다. 1960년대 말기에 가서 은행은 예금자에게 몇 천 달러까지는 초과 인출을 허용하는 현금준비금 서비스에 대하여 강력히 선전하였다.

미국에서는 과거 프로테스탄트의 하늘의 덕은 대부분 사라지고 세속적인 보상이 난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의 기본적인 가치체계는 하는 것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되는 성취의 덕을 강조했으며 각 개인은 자신의 직업의 질에 따라 그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1950년대까지 미국문화는 프로테스트윤리의 어휘를 계속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유희와 오락, 전시, 쾌락에 관심을 둔 향락주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1960년대에는 새로운 문화양상이 나타났다. 그것을 사이키델릭, 또는 반문화(Counter-Culture)라고 부른다. 그것은 부르조아의 가치와 미국의 전통적 규범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였다."부르조아는 탐욕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생활은 무미건조하고 점잔을 빼며, 가족 형태는 그 가치가 저하되고 있고, 의복과 몸치장에 있어서의 노예와 같은 순종은 품위를 낮추고 있으며, 돈에 예속된 일상생활은 참을 수 없다."²²⁾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의 붕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났다. 문화와 이념의 영역에 있어서, 소도읍 생활을 웅색하고 진부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위축시키는 공격은 1910년대에 자의 실적으로 집단을 이룬 젊은 지식인들에 의해서 최초로 조직화되었으며,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사회구조 자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즉 경제체제의 동기유발과 보상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중세기 길드 시대에 분명해진 부호계급의 부의 증가는 노동과 저축이 더 이상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소비와 전시의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노동이나 신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지위나 그 상징이 성공의 표시가 될 것이다.

현대사회의 실제적인 사회혁명은 대량생산과 고도소비의 발생이 중류계급 자체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1920년대에 왔다. 결과적으로 중류계급의 사회적 실제이자 생활방식으로서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물질주의적 향락주의에 의해 대치되었고, 청교도 정신은 심리학적 행복론에 의해 대치되었다.

"새로운 자본주의"²³⁾는 생산 분야에서는 -즉 노동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프로

22) Page Smith, Ibid., p. 9.

23) 1920년대에 최초로 사용되었다.

테스탄트 윤리를 요구한 반면 소비 영역에서는 쾌락과 오락에 대한 욕구를 자극해 왔다. 다양한 오락과 자주적인 도시생활의 확대, 사무 직업의 증가와 자유로운 사회적, 성적 접촉에 의한 여성의 새로운 역할, 영화와 라디오를 통한 민족 문화의 발생 등, 이 모든 것이 낡은 가치 체계에 대한 사회적 권위를 없애는데 기여했다.

청교도 정신은 “지연된 욕구충족”과 보상의 억제라는 말로 간단히 묘사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자원부족의 세계에 있어서 멜더스 적인 절약에 대한 명령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 체제의 주장은 풍요를 가져왔고, 풍요의 성격은 절약보다는 낭비를 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높은 생활수준의 변화의 추진력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19세기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적, 사회학적 기초와 일치한지 않았다.

그런데 1920년대의 풍요와 함께 발생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경제 정치적 갈등에서와는 달리 문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변천을 이루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청교도 정신을 침식해 왔으나,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프로테스탄트 가치의 낡은 언어를 사용했으며 또한 그에 엄매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회고해 볼 때 부르조아 사회는 이중의 원천과 운명을 가졌었다. 하나의 흐름은 휘그적 자본주의(Wing Capitalism)인 청교도로서, 그 강조점은 경제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형성 즉 맑은 정신과 성실, 소명으로서의 노동에 있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을 무한한 욕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급진적 개인주의인 세속적 홉스주의로서, 그것은 집권자에 의해서 정치면에서는 제약되어 있었으나 경제와 문화에 있어서는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충동이 항상 불안정 상태로 병행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관계는 해소되었다. 미국에 있어서 청교도적 요소는 사회적 위신만을 강조하는 피팍한 소도읍 정신으로 변질되었으며, 세속적 홉스주의(Hobbesiaism)는 모더니즘의 주류인 무한한 경험에 대한 강렬한 요구를 충족시켰다.

Max Weber는 “종교 전쟁에서 얻은 계율은 이슬람과 크롬웰 기병의 정복당하지 않는 힘의 원천이었다. 마찬가지로 내면세계의 금욕주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업에 있어서의 구원을 향한 규율 있는 추구는 청교도의 특징으로서의 취득 욕심에 대한 안면을 제공해 주는 원천이었다.

옛날의 종교적인 “하나님의 병사들”의 규율은 군사조직과 전쟁 속에서 면면히 흘러내려왔다. 청교도 정신이 역사적으로 독특한 것은 이런 금욕주의가 직업적 소명과 노동, 그리고 축적에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청교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부는 아니었다. 베버가 지적했듯이 청교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증거 외에는 부로부터 자신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않았다.²⁴⁾

IV. 칼빈의 경제관

A. 칼빈이 주장한 부와 빈곤

칼빈의 경제관을 살피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물질에 대한 이해이다. 또한 그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칼빈도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은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칼빈은 하나님께 음식과 일반적인 것을 간구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양식의 공급에 의해 그의 은총을 나타내신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양식의 공급에 의해 그의 은총을 나타내신다고 보았다. “아버지같이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적은 일에게까지도 미치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신다.”²⁵⁾

그러나 칼빈은 결코 빈곤과 불운을 고통 받는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냉대의 증거라고 보지 않았으며, 또 반대로 개인의 번영을 개인적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나 구원을 위한 선택의 증거로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들에게 부가 불균등하게 배분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빈곤이나 가난은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냉대의 증거가 아니며 부와 번영은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축복일 뿐, 구원을 전제로

24) 마리안네 베버, *op. cit.*, p. 80.

25) 이종성, *op. cit.*, p. 91.

한 선택의 징표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칼빈은 세속적인 변영과 선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형평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질을 소유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가질 수도 있게 하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마다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가치 척도 앞에서는 참 가치와, 그가 가진 빈부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판단은 부르조아 윤리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규범과 같지 않다.

칼빈에게 있어서 부와 빈곤이 성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즉 부와 빈곤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총의 수로들이며, 인간에게 신앙을 확증시키는 수단들이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가 이 지상에 빈곤의 실재를 허용하시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은 부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한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 하나님은 인간의 선의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덧없는 재물을 불공평하게 분배해 주신다. 그는 인간을 심사하고 계신다. -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한 증거이다. 만일 가난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으며 그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부정 해위나 다른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을 끈기 있게 행한다면 이것도 역시 선하고 유용한 시험이 될 것이다.”²⁶⁾

갖가지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부를 독차지 하려는 당시의 사람들에 대하여 칼빈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칼빈의 유익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공공복지가 증진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를 가진 사람이 물질을 통해 형제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재물들은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무시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부를 혼자서 호의호식하여 독점적으로 누려서는 안되고 형제들의 궁핍함을 완화시켜 주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부자들의 사명이다. 우리는 가난한 형제들과 연대 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26) Fred. G, op. cit., p. 91.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하고 계시면서도 스스로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된다.

칼빈 자신도 제네바 시의 책임 있는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고액의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에 드는 약간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자기 재산을 이웃 구제를 위해 다 써버렸다. 칼빈이 경제 분야에서 주장한 가장 명쾌한 이론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칼빈 그 자신도 부의 공평한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였다.²⁷⁾

사람들 가운데서 부의 고르지 못한 분배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볼 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희생시키고 또 얼마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불균형의 기능은 재화의 계속적인 재분배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재분배는 보다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행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질서가 잡힌 사회에서는 재화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 교류는 경제적인 불평을 완전히 제거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 무엇이 이와 같은 부의 자유로운 유통을 차단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인간의 연대 책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호혜 작용의 계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비교적 경제적인 평등으로 지향하기 될 것이다. 이러한 평등에는 각 사람의 고유한 소명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게 된다.

칼빈은 사회 안에서 이러한 부의 상호 교류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나님의 모범적인 예로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나(the manna)의 재분배를 들었다. 이 재분배는 분별된 평등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것에 의하면 “많은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후 8:15)라는 바울의 표현과 같이 된다.²⁸⁾

그러므로 칼빈은 부자를 “가난한 자들을 수종드는 자”, “예수님의 대리자”, 또는 “하나님의 사무 변호자” 혹은 “대행자”라고 부르고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수행하신 이러한 교통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보다 능동적이

27) Ibid., p. 93.

28) 이종성, op. cit., p. 161.

며, 더욱 부지런하도록 용기를 주어야 한다” 교회 안에는 균형 잡힌 올바른 질서와 체계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질서를 이룩하는 것은 지체들이 무슨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받았든지 그 분량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함을 돌보아서 서로 신령하게 교통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균형은 비록 좀 더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이 생기고 재화가 똑같이 분배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의 훌륭한 조화를 산출한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교통함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각 사람이 그 이웃에게 지고 있는 사랑의 빛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다.”²⁹⁾

하나님은 물질이 재분배 되도록 하시려고 물질을 차등하게 분배하셨는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한 중재자이며 이 점에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가 또는 부자로 사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운명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는데, 이러한 경향에 대해 칼빈은, “그들의 생각에는 부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박혀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집을 값지게 꾸미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획득한 부를 잘 간직하려고 할 뿐, 그리스도가 명한 모든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여기면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를 무시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한 말씀도 그들 같은 수전노들에게는 공허하여 꿈같이 들릴 것이다.”라고 그는 슬회하였다.

재화의 자연스러운 재분배는 그리스도와의 사귄이 직접적인 결과이다. 우리가 그려왔던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러한 재분배는 부의 균형과 조화를 수립한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깨뜨려 놓았던 부의 균형과 조화를 수립한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깨뜨려 놓았던 주의 균형과 조화의 재확립을 진실로 원하신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재화의 부단한 유통을 동반하며, 그것은 인간의 사회생활의 상호 보완적인 성격과 의무적인 연대 책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유통은 노동의 분화로 말미암아 요청되는 경제적인 상호 거래에 의해 자연스럽게 확실해진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면, 부의 유통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다. 사랑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사욕 없는 선물의 원인이 된다.³⁰⁾ 칼빈은 사회

29) Ibid., p. 162.

30) 이종성, Ibid., p. 162.

안에서 이러한 부의 상호 교류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모든 지체들 가운데서 재화의 상호 교류라는 이 특별한 교회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칼빈은 집사직의 임무를 새롭게 만들었다, 초대 교회를 본받아서, 칼빈은 금전이 신령한 생활의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했다. 집사들은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신령한 유대를 마땅히 나타내 보여주고, 경제적 유통의 재수립을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서로 서로 이웃 사람들의 영적 생활과 물질적인 조건, 그리고 육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복음서에 의하면 도둑질이란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가로채는 행동만이 아니라는 것을 칼빈은 주목한다. 도둑질이란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것을 이웃에게 주기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도둑질은 하나님 편에서 몰 때에나 사람의 도리로나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로 되돌려져야 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차지하고 있는 행위인 것이다.³¹⁾

우리가 금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 이것은 사회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이룩하신 새로운 영적 교통은 필연적으로 그 지체들이 가진 재화들을 상호 교류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러한 재분배는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칼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균형과 평등이 있기를, 즉 각 사람은 그의 가진 한도 내에서 곤궁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어서, 아무도 너무 많이 가지거나 너무 적게 가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

칼빈의 경제 윤리는 상호 유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정당한 평등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 파괴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무질서가 야기되었다.³²⁾ 칼빈은 바로 이러한 가난한 사람과 고아, 과부 및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그 자신이 가졌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늘 호소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을 살인자와 야수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칼빈은 또한 매점 매석 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소요를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모든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31) Ibid., p. 168.

32) 이태언, op. cit., p. 145.

고 말하면서 인간으로부터 이들을 심판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압제 당하는 자들에게 참고 기다리도록 권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수해 주실 것이다. 이 처럼 칼빈은 부와 빈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결론으로 서로 한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면서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일에 해결을 위해서 제네바에서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였다.

B. 교회 안에서의 돈의 기능

교회의 직무는 단지 영적인 직무가 아니며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의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양식을 줄 것을 명령하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금까지 예수는 영혼을 만족시키기에 열중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심지어 육체를 돌보는 일까지도 그의 직무에 속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그는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확신시킨다.”

말씀의 전도가 물질적인 생활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칼빈은 목사들에게 신도들의 물질적인 염려를 덜어줄 것을 요구한다.³³⁾

교회는 영적인 부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도 분배와 교통이 있어야 한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평준화를 피하는 이런 규율은 모든 사람들의 사명과 요구를 참작한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각자가 맡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이해 봉사하는 데서 유래한 일종의 분화된 평등이다. “신자들이 각자의 재능과 요구에 따라 서로 교통할 때 이런 상호협회는 비록 타고난 재능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었을지라도 아주 적절하고 멋진 하모니같은 분배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소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신은 모든 것들의 소유주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이 그의 재산의 관리를 맡긴 둘째 단계의 소유주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으로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가난을 인내해야만 한다. 우리가 부유하다면 우리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여겨질 재물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³⁴⁾ 칼빈은 우리가 세상 물질에 탐욕으로 물들지 말 것을 경고하면

33) 이종성, op. cit., p. 161.

서 특히 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에 감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할 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소유자는 그가 언젠가는 청산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가 가진 재물을 소유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명심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소유물을 그의 이웃을 돕고 부양하는데 사용해야만 한다.”³⁵⁾

칼빈은 여기서 부는 모두 하나님께로서 부리거나 허영이나 교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이 얻는 것에 의해서 오용해서는 안된다.

부자들은 그들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하나님에 의해 무상으로 주어진 것임을 명심한다면 그것은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 성도들 간에 존재하는 소유의 규율은 각자의 소유권이 분명히 인정이 되면서도 그것은 이기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유의 윤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물질적인 소유는 엄밀하게 개인적이며 영적인 삶의 몫이면서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공동의 것인 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간에 확립된 부에 대한 상호 교통제도는 부에 대한 상호 교통제도는 예배에서 드러지는 헌금에 의해 잘 표현된다. 물질적인 헌금에 의해 인간은 그의 모든 물질과 더불어 그가 신에게 속함을 인정하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헌금의 척도에 관해서 칼빈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각자 개인의 내적인 헌신에 속하는 것이며 외부에서 강요된 규범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바로 헌금의 참된 의미는 구세주에게 봉사하고 이웃을 돕는데 전 생애를 봉헌하는 것을 표현하는 점이다. 모든 신자들 사이에 물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칼빈은 집사제도를 설립했다. 초대교회를 따르면서 칼빈은 돈이 영적 생활의 영역 안에 다시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³⁶⁾

34) 김광수, 칼빈의 경제 윤리 연구(서울, 1991), p. 18.

35) 이종성, *op. cit.*, p. 163.

36) *Ibid.*, p. 164.

C. 상업과 고리대금업

상업과 노동의 목적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과업을 맡기셨고, 그렇게 함으로서 인간이 서로서로 봉사하며 살도록 하셨다. 노동의 분업화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피조물의 의존성을 보여주며 피조물이 사회 안에서 살도록 허용하셨다. 노동은 인간의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개인들이 서로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야 한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노동의 분업화를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상업이다. 이와같이 칼빈은 상업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한 점이 그의 경제사상을 중세 신학자와 구별시키는 점이다. 또한 종교개혁자 루터와도 다른 점이다. 루터와 칼빈을 잠시 비교해 보면 루터는 농업을 증가시키고 상업을 감소시키는 것이 훨씬 더 경건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무역 회사들은 선한 양심이란 조금도 없는 탐욕과 악행의 밑 빠진 독이라고 말했으며 모든 상인들은 사기꾼으로 보았다. 루터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서 이윤을 붙여 파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상업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물었다. 이에 비해 칼빈은 상공업도 하나님이 정한 천부적인 직업으로 보았으며 상인들의 매매 활동이 건전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상업의 거래 없이 공적 정부가 지탱될 수 없다.” 고 말했다.³⁷⁾ 칼빈은 상품을 쉽게 수입하고 수출할 수 있는 강이 있는 지역은 급속도로 번영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으며 무역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들은 부지런히 활동할 뿐 아니라 많은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면서 이윤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역의 직접적인 목표는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상업 활동을 통해 상품이 유통됨으로서 인간의 고통이 줄어들고 인간이 삶이 쾌적해 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상업은 이 목적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만일 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적에서 이탈하며 그 성격은 급격하게 변화된다. 사기와 부정은 사실상 경제 관계를 왜곡시키고 인간과 단체를 고립시킬 뿐 아니라 교역과 생활안전에 필수적인 사회질서를 파괴시킨다.

37) Fred. G, op. cit., pp. 109 - 110.

칼빈의 이러한 생각에는 16세기의 제네바에서 생필품의 부족하고 매점매석이 일어났을 때 생계비가 폭등하고 상인들은 폭등하는 물가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재기를 한 이러한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칼빈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선지자적인 대담성을 가지고 이들 투기꾼을 공격하였다. 심지어 이들에 대해서 살인자들과 다름없다고 외쳤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유통을 막아 물가를 올리기 때문이었다.³⁸⁾

또한 칼빈은 상공업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자를 받는 것을 허용하였다. 당시 카톨릭과 루터는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들이 주장은 성경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은 가난한 자들이 소비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이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자금을 빌린 돈에 대해서까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D. 임금과 노동

「노동과 인간」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 하든지 인간은 노동을 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노동은 어떠한 면에서 인간의 필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일상 생활의 일과이다. 우리는 노동 자체 안에 있는 섭리에 복종하여 그 노동을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노고가 가볍게 생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로 완성되리라는 확신에서 모든 충실한 노고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⁹⁾

기독교인은 노동을 죄악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을 하나님과 사회에 대한 봉사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한 생산 활동에 의하여 피조물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노동은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이 지상에서 노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의 행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까닭

38) Fred. G, Ibid., p. 111.

39) Andre Bieler, op. cit., p. 84.

은 그것이 올바르게 행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의 삶을 떠받쳐 주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손발을 주었고 산업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할당된 짧은 삶의 시간을 몰 때 우리는 나태 속에서 빈둥빈둥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한다. 칼빈은 병석에 누워서도 제자들에게 구술하여 저작활동을 계속했다.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 좀 쉬라고 권면하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죽은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삶은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이자 삶이었다.⁴⁰⁾

칼빈은 또한 나태한 삶을 비판하고 근면성을 주장하였지만 노동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보았다. 노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았다. 칼빈에게 있어서 노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며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것이다. 노동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노동하지 않더라도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처럼 노동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한 일,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칼빈은 하나님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의 직업으로 부르신 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직업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면서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이처럼 직업을 정해주신 목적은 불안정한 인간의 본성을 질서있는 생활방식으로 통제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업에 대해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만족하면서 종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칼빈은 당시 사회질서가 급속히 붕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듯하다.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삶의 다른 영역에서 어떤 중요한 기능을 성취하도록 지정되어져 있다. 이에 덧붙여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의무를 유

40) 신복윤, 칼빈의 윤리관(신학지남, 제 36권, 1969. 10), p. 51.

감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직업에 따른 책임감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부르심(Calling)이 모든 일에서 선행의 시작이자 토대라는 것을 안다면 충분할 것이다.⁴¹⁾

이것은 사람이 전체 교회와 인류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인간의 단결에 대한 그의 부단한 관심과 일치한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칼빈은 직업 선택의 경우에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규범으로 삼으려 했다.

노동이 어떤 사람에게서 거절될 때마다, 또는 그의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 제거될 때마다 개인과 공공복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노동력이 포화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노동을 남용하거나 착취하는 일이 많았는데, 칼빈은 이것을 죄악으로 정죄했다.

그러므로 사회는 인간의 노동을 타락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노동에 속한 모든 것은 공익의 도구가 되어야지 사회적 억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생활의 어떤 양식도 인간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노동이 적절한 조건들 밑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을 압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죄 받아야 하며 공익에 봉사하는 방법으로 노동은 보호받아야 한다.

임금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보면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서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자신이 당당한 몫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할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하는 것에는 공로가 전혀 없다.⁴²⁾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의 행위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금을 지불하신다. 그는 그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완수되어야 할 우리의 노동에 대해 보상해 주시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든지 인간의 노동에 부여하는 임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동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이다. 칼빈은 무익한 종에 대한 누가복음 17:17에 대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에게 보상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보상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임금이 하나님에 의

41) Andre Bieler, op. cit., pp. 81-82.

42) Fred. G, op. cit., p. 119.

해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지불되며 어느 누구도 그가 받은 것에 합당한 공로를 지닌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든지 인간의 노동에 부여되는 임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동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신성한 것이다.”⁴³⁾

그것은 인간의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봉급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고혈을 빨아먹는다는 말은 빈약한 임금을 지불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고 미루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칼빈의 애용어이다.

“강도가 사람을 죽일 때 그의 목적은 약탈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은 나중에 그를 벌거벗겨 무일푼으로 내쫓는다. 이러한 행위는 그가 이방인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보다 더 흉악한 것이다. 더욱이 객관적으로 말해서 임금은 고용주에게 속한 것도 일꾼에게 속한 것도 아니다. 두 사람 다 마땅히 그것이 마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받아야 한다. 그 같은 생각이 정당한 임금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⁴⁴⁾

칼빈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임금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임금의 수학적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 경영주가 법적인 최소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평등하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평등은 황금률에 의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행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해서는 안 될 자연적 평등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봉사를 받을 때 이렇게 자문해야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처지라면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할 것인가? 나는 도움을 받기 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손실에 관한 문제일 때 우리는 유능한 재판관들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문제일 때 우리는 장님이 되고 만다.

칼빈은 바로 이러한 임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싸움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임금협상을 제시한다. 그는 심지어 집단 계약을 구상하기도 하고 법정에서 문제를

43) 이태언, *op. cit.*, p. 150.

44) 이태언, *Ibid.*, p. 151.

해결할 것을 추진하기도 한다. 특히 그는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불공평의 비난을 막기 위해서 노사간의 임금협상을 시의회가 중재하여 양자의 합의 하에 계약을 맺도록 지도했다.

임금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이다.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인간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루고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결속은 노사 관계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칼빈은 설교 강단에서 임금의 지불을 미루고 "일꾼은 내 종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일꾼에게 명령해야지"라고 말하는 어떤 주인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교했다.⁴⁵⁾ 그러기에 그 주인은 일꾼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나는 주인이긴 하지만 압제하지 않는다. 주인이긴 하지만 복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한 가족과 같다."⁴⁶⁾

인간의 노동은 땀의 결정이며 칼빈이 늘 말하듯이 노동자의 고혈이다. 궁극적인 임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가난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기만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자비가 거절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회중 속의 고용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이 고용했으며,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 그들의 노동, 그들의 땀, 그들의 피를 바친 가난한 사람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당신들이 그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베풀지 않을 때, 그들이 당신들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당신들이 그 징벌을 모면할 수 있도록 누가 당신들의 변호사와 옹호자가 되겠다고 나서겠는가?"⁴⁷⁾

당시 제네바는 고용 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종업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미달되는 금액을 지불하기도 했으며, 임금을 둘러싸고 분쟁도 심하였는데, 이에 대해 칼빈은 임금의 보상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그는 집단 계약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법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 짓는 것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노사간의 임금협상을 할 때 시의회는 양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할 것을 칼빈은 요청하면서 노동자와 교사들의 봉급을 인상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회를 자주 방문하였으며 시의회가 가족 부양법을 표결에 붙일 때, 칼빈은 국가가 고아들을 돌보

45) Ibid., p. 153.

46) Fred. G, op. cit., p. 121.

47) 이태언, op. cit., p. 154.

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그는 시 당국이 기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⁴⁸⁾

이러한 칼빈의 합리적인 생각이 바로 자본주의 발전과 오늘의 서구 자본주의 형성에 일조했으며 이러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참으로 높이 평가 할만하다.

V. 칼빈의 사회복지 정책

A. 구빈원을 통한 구제활동

칼빈은 제네바에서 개혁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집 사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의 빈민 구제활동은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개혁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이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빈민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중세에는 빈민 구제 활동이 구원과 관련되어 실시되었다.

이런 관점이 발전하여 감에 따라 구제품을 주는 것을 구원과 관련시키는 사상이 생겨났다. 중세의 부자들은 살았을 때 자선금을 줄 뿐 아니라 죽은 뒤에 유산을 기증했다.⁴⁹⁾

제네바의 경우를 살펴보면 1535년 11월에 시의회가 생클레어의 고대 수녀원에 종합 구빈원(General Hospital)을 설치했다. 이 기구는 이전에 있던 빈민구제기관 8개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구빈원"이란 말은 오늘날 병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도움을 필요로 여러 부류의 사람에게 친절을 제공하는 다목적의 기구이다.⁵⁰⁾ 이 건물은 제네바의 중심지에 있는 건물이며 여기에는 고아와 기아 등 수

48) 이호열, *op. cit.*, p. 276.

49) 이호열, *Ibid.*, p. 277.

50) 맹용길, *기독교윤리 사상*(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pp. 158-159.

십 명의 어린이와 너무 늙거나 병들었거나 불구여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거하고 있었다. 구빈원은 이 외에도 그 지역들을 통해서 가난한 가정에 빵을 나누어 주고 제네바에 도착했으나 거주할 비용이 없는 여행자들에게 저녁 숙식을 제공했다.

종교개혁 후에 로마 카톨릭 세력은 물러가고 기존의 빈민구제 기구는 마비되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데 반해 전쟁속에서 빈민들은 더욱 증가하여 어떤 새로운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었다. 이때 시위원회는 모든 빈민 구제기구를 통합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전의 기구들의 재산은 대부분 새로운 종합 구빈원에 승계되어졌다. 이와 같이 제네바의 복지제도인 구빈원의 개혁은 칼빈과의 직접적인 관련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칼빈은 바로 이 구빈원이 개혁된 뒤에 왔다.⁵¹⁾

그러나 칼빈은 구빈원의 운영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왜냐하면 이 구빈원의 운영이 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 3개월마다 목사회의 몇 사람이 원장과 함께 구빈원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칼빈은 이 구빈원의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목사들은 구빈원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느낄 때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목사들은 의사와 약제사들은 구빈원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일하고 시 경비로 급료를 받았다. 이러한 일은 칼빈의 사후에도 계속되었다.⁵²⁾

B. 집사제도를 통한 빈민구제

특히 이 개혁된 구빈원의 운영은 집사들에게 맡겨졌다. 1535년 개혁된 직후에는 시위원회와 상인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1541년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돌아온 뒤에 그는 교회규칙을 작성했는데 그 중에서 교회행정의 4번째 계급인 집사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 집사들이 칼빈에 의해서 돈을 다루고 구빈원을 정돈하고 감독하며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편제되었다.

칼빈은 집사직을 둘로 나누고 있다, 칼빈은 성경의 교리뿐 아니라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도 권위적인 통일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행 6:1-6에 있는 일시

51) Fred. G, op. cit., p. 104.

52) 이태언, op. cit., p. 147.

적인 집사직을 딛전 3:8-13에 있는 바울 서신과 연결시켜 집사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항구적인 교회직분이라고 결론지었다.⁵³⁾ 바로 이 집사들이 구빈원에서 일했다.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구빈원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거주해야 했다.

구빈원에서는 이들에게 빵과 식탁을 제공했으며 그래서 이 자리는 매력적인 자리가 되었다. 집사들이 구빈원의 재산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되었다. 곧 집사들은 네 개의 수입원이 있었다. 구빈원장과 외과 의사의 봉급을 위해 시의회에 의해 예산에 반영된 돈, 벌금에 의한 세입, 자선을 위해 헌납된 물건의 판매, 회사금이나 자선금에 의한 수입이었다. 또 이뿐 아니라 베자와 칼빈의 저서에 의한 출판수입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헌금으로 사용되었다. 칼빈이 빈민 구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프랑스 피난민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데서도 잘 나타난다. 프랑스에서 개혁신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 많은 피난민들이 제네바로 몰려왔다. 프랑스에서 개혁신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 많은 피난민들이 제네바로 몰려왔다. 바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원조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했다. 이 기금 운영 역시 집사들이 선출되어 이들이 바로 이 기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칼빈이 현금하였고 이 일에 참여한 것이다.⁵⁴⁾

가난한 자에 대한 일은 또한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교회의 수입 역시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성직자들과 빈민자들과 교회 건물의 수리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타지방과 본 지방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각각 한 몫을 마련했다.

칼빈의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한 사회사상은 중세와 같이 기독교의 사회적 유기체의 위계질서와 상호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통적 견해를 따랐다. 이 견해는 전체 사회조직을 돌볼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빈민구제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빈민구제 계획은 16세기를 지배한 유기체비유에서 깊이 뿌리박고 있다. 칼빈은 형제관계와 유기적 통일의 이념에 토대를 둔 사회정치이론을 포기할 수 없었다. 칼빈은 시민들과 가난한 사람을 똑같이 포용하는 공동체적인 공리에 집착하면서 오늘날에 사회경제적 문제라 불리는 것을 기능적이고 상호 작용을 하는 유기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언급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⁵⁵⁾

53) 맹용길, op. cit., p. 160.

54) Ibid., p. 162.

55) Ibid., p. 163.

칼빈은 사회적 결속으로서 몸의 비유 사용을 강화했다. 기독교 공동체의 개념은 종교개혁속에서도 남아있었고 영육으로된 인간 개인의 개념위에 사회적 유기체의 재구성속에 재창조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개인을 돌보듯이 정치조직은 모든 시민의 영육을 돌보듯이 정치조직은 모든 시민의 영육을 돌보아야 한다. 공동체의 도덕적 영적 건강은 빈민 구제같은 구체적 물질적 관심과 연결된다.⁵⁶⁾

VI. 칼빈의 경제관이 현대사회에 끼친 영향

지금까지 우리는 칼빈의 경제관을 칼빈의 견해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칼빈의 이러한 경제사상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도 유효하고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사상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칼빈의 이론과 사상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후된 사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칼빈의 경제사상은 현대 사회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점점 새롭게 규명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 칼빈주의가 현대사회와 한국의 경제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그 영향력을 살피고자 한다.

A. 칼빈과 현대사회

칼빈주의가 현대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일면을 살피고자 한다. 물론 칼빈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지 몰라도 분명히 칼빈은 오늘날 서구 기독교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고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프레드 그래함(W. Fred Graham)은 말하기를 칼빈은 종교적 혁명가였다. 우리는 이제 그가

56) 맹용길, Ibid., p. 164.

또한 세속적 혁명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세속적 혁명이 칼빈에게는 종교적 혁명의 부산물 이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칼빈이 그 운동을 시작한지 않았지만 확실히 그가 그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도래를 위해서 뿐 아니라 민주주의, 과학, 공업기술, 그리고 현대인의 합리적 수단들을 통하여 시도한 모든 점에서 찬양받거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의 이론들은 서구 민주화나 개개인의 자유의 존중에도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가들은 교회를 엄격한 계급제도의 통제를 받은 조직체가 아니라 교인들의 공동체로 파악했으며 이러한 개념 위에 서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교회에 속한 일반평신도 개개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사상은 대의 민주정부와 민주정체가 성숙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요소를 제공했다. 우선 만민제사장성 교리 자체가 바로 피라미드 계급구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의 현대사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에 대한 것이다. 종교개혁가들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에 대한 열정, 고전 언어 및 문학에 대한 사랑 등 곧 개혁가들은 교육을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서 강조하는 한편 일반 교육과 보편적인 문명퇴치를 주장함으로써 인문주의자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칼빈 역시 어린이 교육에서 교회나 국가가 어린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해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제네바에 대학을 세워 직접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도 하였다. 칼빈의 생시에 설립되었던 제네바 아카데미는 1565년 목사들의 뜻에 반(反)하여 법과 강좌가 신설되었고 칼빈 이후에도 베자의 영도 아래서 유럽개신교 학문에서 가장 유명한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⁵⁷⁾

이러한 영향은 서구 각국으로 번져서 제네바 아카데미 뿐 아니라 칼빈주의가 전파되는 곳마다 대학이 설립되었다. 에딘버러, 라이덴, 암스테르담, 몽타우반 등 수많은 대학이 설립되었다. 이 교육뿐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 등 예술 분야에서도 종교개혁은 큰 진보를 나타내 주었다. 루터는 예술가들과 장인들의 기술을 존경하였으며 교회내의 예술작품들도 우상숭배가 아니라 단순한 장식인 경우에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혁가들에 의해서 교회 예술에 대한 태도가 예술의 장래를 결정하였는데 그들의 교리에 따른 가르침들이 예술에 반영되기도 했다. 물론 조각 같은 분야는

57) Spitz, L. W.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4), p. 226.

이전보다 퇴락하였다.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음악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시편 찬송을 선호하였으며 1562년에는 칼빈의 동의아래 최초의 프랑스어 시편집이 발간되었다.⁵⁸⁾

루터 역시 8개의 찬송가를 작곡하기도 하였고 쾰링겐 역시 개인적으로 음악을 사랑하였다. 이로 인해 16세기에는 음악의 황금시대로 불리우게 되었고 이러한 음악적 기호가 오늘에 서양 음악의 큰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종교개혁과 과학과의 관계이다. 종교개혁과 과학과의 문제는 중요한 역사적 문제이다. 왜냐하면 다른 곳이 아닌 서양에서만 현대 과학, 기술 등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발전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한 설명과 원인은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더 많은 과학적 발견을 이룩하였으며 이들을 실제 응용, 사용하는 데에서 카톨릭보다 훨씬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막스 베버가 말한 금욕적 칼빈주의는 과학적 방법에 필수적인 요소인 경험주의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전통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적 태도와 영적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프로테스탄티즘과의 연관관계를 주지할 수 있다.⁵⁹⁾ 특히 후기 칼빈주의자들인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 목적달성을 위해 고학을 사용했다는 점을 중시하게 된다.

이처럼 칼빈의 영향력은 그의 시대만 국한되지 않고 그 후 수 세기에 걸쳐 유럽의 교역과 정복을 통해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세계 도처에서 그의 영향력을 지속해 나아갔다.

B. 칼빈과 21세기를 위한 한국의 경제관

우리 한국사회는 경제적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노력의 결과는 성과만큼 얻지 못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상대적인 빈곤의 갈등이 심한 사회이다. 이처럼 심화된 부의 편중은 인간의 소유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소유욕은 그 끝이 없기에 그 뿌리 깊은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58) Ibid., p. 227.

59) 마리안네 베버, *op. cit.*, p. 101.

우리나라의 경제가 실로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피부로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둔감해져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IMF며, 노사간에 불안정, 교육문제의 부실, 정치적불안과 국민의 사치 생활은 경제생활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것들은 그 밑바닥에 사리사욕이 있다. 정치적 혼란은 사리사욕이 없이 일어날 수 없으며, 사치 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의 욕심 때문에 결국 나라까지 팔아먹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불필요한 해외여행 그리고 과도한 해외여행 경비 등은 참으로 나라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 엄청난 낭비와 사치로 인해 나라가 어려워지면 당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게 된다. 낭비와 사치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고통은 가난한 사람들이 짊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국가 기관과 국가의 제도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기존 체제는 소수 권력자들의 이익에 봉사할 뿐이다. 국가 제도는 가진 자들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인류 전체를 위해 있어야 할 국가 제도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또 이러한 빈부 차이에 대해 부자들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분명한 해결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아무리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아무리 인권적인 설교와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부자가 쉽게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겠는가? 빈부의 극심한 차이에 대한 책임을 부자들도 가지고 있지만 부자들만으로는 온전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빈부의 극심한 차이에 대한 책임이 가나나한 자들과 부자들에게 똑같이 50%씩 있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 빈부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자들에게도 그 빈부의 차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가나나한 자들에게도 이 빈부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고, 부자들에게도 이 빈부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먼저 가난한 자들은 이 가나나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가난의 문제는 노동과 같아서 우리가 매일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 가난을 풀어나가라는 과제를 내어 주셨다. 결코 이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이제 이 가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요 우

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이 가난의 해결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이다.

VII. 결 론

이제 결론으로 본 논문의 앞에서 고찰하였던 칼빈의 모든 것들을 근거로 청지기의 개념과 기독교인의 책임과 임무 그리고 경제생활의 바람직한 태도를 위하여 개인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제시하므로 본 논문을 마치려 한다.

A. 청지기 직분

경제적 질문들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를 둔 하나님 중심주의적 세계관에 있다. 하크니스는 물질의 소유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는 청지기직(Stewardship), 즉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온다고 하며 이 용어는 좁은 의미로서 특히 십일조를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으나 그 본래의 뜻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물건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자들이라는 것이다.⁶⁰⁾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지기는 그 재산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나 같이 천한 자에게 이 귀중한 청지기 직분을 맡긴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선한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세메데스(Semedes)는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책임의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대항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청지

60) Jacques Ellul, 하나님이나 돈이나, 양명수 역(서울:대장간, 1991), p. 98.

기로서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정당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을 안타까와함으로써 가진 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셨다. 예수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 6:24)라고 하셨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에의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 베푸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적인 슬어로 말하면 폐쇄적인 사유 재산 관념에서 해방이요, 성서적인 용어로 말하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길 밖에 없다.⁶¹⁾

요한 웨슬러(John Westley)는 ‘금전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재물에 관한 세 원칙을 설교 했는데, ‘첫째, 벌 수 있는 대로 벌며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아끼며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어라’는 세 가지의 설교를 하면서 재산은 최선의 노력으로 벌어들여 그의 사용은 낭비 없이 가장 검소한 수준에서 자신의 필요와 가족의 부양과 믿음의 가족을 돕는 일에 성실히 사용되어야 하며,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저장을 위한 허영과 사치의 생활을 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권고하였다.⁶²⁾ 종교개혁자 특히 칼빈의 윤리는 또한 청지기의 윤리였고 이것이 바로 오늘에도 우리의 재산, 소유와 소비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B. 우리의 할 일

기독교인들은 많은 세계의 소외되고 굶주려 있는 모든 곳에 도움을 줄 책임이 요청된다. 개인적으로나 합심하여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또한 동시에 거기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식량생산을 위해서 땅의 면적을 넓힐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를 벗어나서 책임을 피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난한 자의 외침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은 한계 안에서 개인적으로 응답을 하도록 한다. 책임은 심지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응답하도록 하여 준다.

61) 김패상, 성서윤리(기독교사상사, 1987. 4), p. 159.

62) wesley의 설교중에 금전의 사용요약.

또한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가 있다. 그것은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교 윤리의 원칙들을 명확히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놓여있다. 교회가 경제체제와 동일시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식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경제적 문제의 해결로부터 개인이나 그룹들을 방치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는 개인주의나 자기기만에 의해서 나열된 인생들 틈에서 사회의 새로운 사상을 창조해야 할 큰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더욱 좋은 기독교인의 경제 질서는 정의로서 나타내는 사랑의 개념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19세기 개인주의 영향 아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의 주장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수십만이 가난한 생활로 고통을 겪어야 했었다. 비록 우리 사회 안에서의 경제적 개혁이 경제의 활동과 정치적 힘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비효과적이 될 것이다. 교회에 현대적 물질주의나 개인주의와의 타협이 있을 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 있는 개인과 국가로서의 기독교인이 빈곤한 자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먼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본다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사, 변호사, 목사 등 각기 다른 분야에 일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다.

교사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무지가 빈곤의 원인이고 빈곤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 우리는 무지에서 그들을 해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의사들은 빈곤한 곳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무료 진료를 해 주는 일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하며, 변호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로 변호하여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의 교역자들은 될 수 있는 데로 빈곤한 지역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첫째로 말씀을 전하는 구역이 일차적으로 빈곤한 지역이 되어야 하며, 그들과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몸소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아픔을 더욱 동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교회의 시설이나 구제가 부유한 자들을 위해서보다는 빈곤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선교원이나 노인대학을 설립하여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이나 노인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며, 셋째로 구제사업이 일시적인 효과를 위한 것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빈곤지역을 위해서 쉼터를 지어서 그들이 영육 간에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보면 많이 있다. 특히 교회는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지닌 공동체이기에 개혁자 칼빈의 올바른 경제윤리 사상을 정립하여, 점점 대중향락주의로 병들어 가는 몇몇의 사람들과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선으로 하여 힘을 모두위 자기 위치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고집을 버리는 용단과 슬기가 필요할 때다 그리고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눈과 귀가 열려지는 명철히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그럴 때에 21세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외국 서적

- Barclay. W, Ethics In A Permissive Society London and Glasgow:
Colins, Fantana Books, 1971.
- Bauman. E.W, Where Your Treasure Is Arlington Va:
Bauman Bible Telecasts, 1980.
- Camus. A, L'HoMMe Revote, Librarie Gallim, 1951.
- Dewalf. L. H, Responsible Freedom, New York : Herper and Row, 1971.
- Page. S, As a city upon a hill, New York : Alfred A. Knopf, 1960.

2. 국문 서적

- 김광수, 「칼빈의 경제윤리 연구」 서울, 1991.
- 김쾌상, 「성서 윤리」 서울 : 기독교 사상, 1987. 4.
- 김영모, 「현대 사회 문제론」 한국복지 정책 연구소, 1981.
- 나학진, 「기독교 윤리학 개설」 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
1979.
- 맹용길, 「기독교 윤리 사상」 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1.
- 신복윤, 「칼빈의 윤리관」 신학지남, 제36권, 1969. 10.
- 신인현, 「빈곤에 도전하는 기독교」 서울 : 대한 기독교 서회, 1980.
- 이양호, 「칼빈의 종교개혁의 사회적 배경」 서울 : 기독교 사상, 1986. 10.
- 이종성,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 CLS, 1990.
- 이태언, 「칼빈의 개혁 사상 연구」 서울 : 성광문화사, 1992.
- 이호열, 「세계 기독교사」 서울 : 기독교지혜사, 1988.
- 전경련, 「예수의 교훈과 윤리」 서울 : 향린사, 1974.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 한국성서협의회, 1978.

정하은, 「혁명기의 기독교」 서울 : 기독교 서회, 1975.

3. 번역 서적

Barclay. W, 「기독교 윤리 평행」 서기산역, 서울 : 기독교문사, 1979.

Bieler. A,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5.

Ellul. J, 「하나님이냐 돈이냐」 양명수역, 서울 : 대장간, 1991.

Fred. G,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6.

Gelbraith. J. K, 「The Nature of Mass Poverty」 민병일 역, 서울 : 태평출판사, 1979.

Greham. F,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6.

Spitz, L. W, 「종교개혁사」 서일영역, 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4.

Webber. M, 「막스베버의 생애」 서울 : 일신서적, 1995.

4. 학위 논문

조경현, 「칼빈의 사회 경제관 연구」 학위논문(석사), 총신대 신학대학원, 1992.

이행용, 「칼빈의 경제관」 학위논문(석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1995.

조규희, 「칼빈의 경제윤리」 학위논문(석사), 장로회 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